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두번째 입시에서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하버드 야드로 통하는 대문이다

## 하버드 신입생, 아시아계 41%로 역대 최고... 흑인 · 히스패닉 비율 급감

대법원 인종 고려 입시 폐지 2년째, 다양성 구성 변화 뚜렷  
 지난해처럼 통계방식 변화, 올해도 여전히 숨겨진 8% 존재  
 당분간 아시아계의 상승세 유지 후 중장기적 완만한 감소세 예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인종을 밝히지 않은 8% 제외하고도, 하버드 대 가을 신입생(2029 졸업학번) 중 아시아계는 크게 증가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급감했다.

**<전체 기사 읽기>**

하버드가 10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11%로 눈에 띄게 급감했다. 흑인 학생 비율도 14%에서 11.5%로 2.5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37%에서 41%로 4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면으로 계속

## NOAA, 올해 겨울 평균보다 따뜻할 것, 눈은?

남부는 온난한 겨울, 북부는 전형적 한파와 폭설 가능성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올 겨울은 좀더 따뜻하며 눈과 비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해양대기청(NOAA)이 22일 발표한 겨울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보스톤을 비롯한 남부 뉴잉글랜드 지역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다소 습도가 높은 겨울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 북부 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한랭하고 눈 많은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식 겨울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남부 뉴잉글랜드의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다소 높다. NOAA는 최근 10년 동안 뉴잉글랜드의 겨울 중 7번이 평년보다 따뜻했으며, 추웠던 겨울로 분류된 해조차도 >>8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건설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아 하블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지금 이 채용자 기회!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책임집니다!  
저금리 융자 · 채용자 전문, 맞춤형 금융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시 심포지엄, 의학 인공지능 전문가 한자리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는 지난 9월 24일 보스톤 케임브리 혁신센터(CIC)에서 열린 2025 NEKSOM 인공지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학 및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AI의 의료 적용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연사로 초청된 이수인 교수(워싱턴대학교)는 인공지능, 생물학, 의학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 석학이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은 어떻게 개발되고 학습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전체 기사 읽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과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나 가진 교수(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심장내과)는 "인공지능이 의학과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우리는 함께 배우고, 적응하며, 성찰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이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의료인 모두가 책임감 있게 변화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의료계와 바이오 산업계 리더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유매스(UMass) 의과대학 방사선과 교수이자 한인의사연구회(NEKSOM) 김영환 회장은 "인공지능이 제공할 편리한 세상을 올바르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법과 그 이면의 위험성을 함께 이해하고, 개발과 감독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인의사연구회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보스톤 지사 박순만 소장의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인의사연구회는 앞으로도 한인 의료인과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의학과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좌)기조연사로 초청된 이수인 교수(워싱턴대학교)와 하나 가진 교수(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심장내과)

## 보스톤산악회, 11월 1일 트라이피라미드 산으로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1월 1일 토요일 뉴햄프셔 화이트마운틴 지역의 트라이피라미드 산으로 제 17차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 난이도는 5단계 중 4.7인 높은 편에 속하며, 이에 따라 산행 코스는 난이도와 체력에 따라 세 개의 조로 나누어 진행된다.

A조는 리버모어 로드(Livemore Rd) 주차장에서 출발해 리버모어트레일과 트라이피라미드산 트레일(Mt. Tripyramid Trail)을 왕복하는 10.5마일 코스이다. B조는 6.8마일 코스로 노스 트라이피라미드까지만 오른다. C조는 5.6마일 코스로 리버모어트레일(Livemore Trail) 일부 구간을 산행한다.

준비물로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또한 배낭,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헤드랜턴 및 간편 중식이 필요하다. 특히 정상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겨울 장갑과 모자, 바람막이, 따뜻한 모자달린 재킷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자는 B조 또는 C조 참여를 권장하며, 먼 티셔츠나 청바지 등은 삼가고 드라이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

산행당일 집결 시간과 장소는 오

**〈전체 기사 읽기〉**  
전 6시, 93번 뉴햄프셔 출구 2번 파크 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프레스 서버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다. 차비는 1인당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몸살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산행을 취소해야 하며, 참가자들은 A·B·C 중 원하는 조, 차량 운행 여부를 신청 시 함께 밝혀야 한다. 급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산악회 측은 전날 날씨에 따라 필요 시 파인벤드브룩트레일(Pine Bend Brook Trail)로 올라 새바데이브룩트레일(Sabbaday Brook Trail)로 하산하는 코스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새바데이브룩트레일 구간이 혼동 되므로 GPS 지도를 휴대폰에 미리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이번 산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전날 보스톤산악회 홈페이지(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는 617-780-9588에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SEUL SEOLRYEOM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id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을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칠당귀, 신수유, 상항너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부드러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이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 단점 고객센터 권려권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넷플릭스 인기 <김스 컨비니언스> 보스턴 무대에 올라 인스 최 주연 연극 <김스 컨비니언스> 헌팅턴 극장서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캐나다와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시트콤 <김스 컨비니언스(Kim's Convenience)>의 원작 연극이 올 11월 보스턴 무대에 오른다.

헌팅턴 극장(The Huntington)은 오는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보스턴 사우스엔드의 칼더우드 파빌리온(Calderwood Pavilion at the BCA, 527 Tremont St)에서 이 연극을 무대에 세운다.

<김스 컨비니언스>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토론토의 동네 편의점을 배경으로, 세대 차이와 문화 충돌, 가족애를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이 연극은 캐나다 아티스트 중심 극단인 소울페퍼(Soulpepper)와 샌프란시스코의 아메리칸 컨

**<전체 기사 읽기>**  
서버토리 시어터, 아담 블랜세이 프로덕션의 공동 제작으로 진행되며, 연출은 웨이니 멩게사가 맡았다.

극작가이자 원작 드라마의 공동 제작자인 인스 최(Ins Choi)는 이번 보스턴 공연에서 아버지 '김씨' 역할로 직접 출연한다. 최씨는 "이 작품은 나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낯선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이민 1세대들에게 바치는 러브레터"라며 "처음에는 아들 '정' 역할로 무대에 섰지만, 이제는 아버지 역할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 연극은 2011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극으로 평가받으며 CBC와 넷플릭스를 통

해 드라마로 제작됐다. 토론토 스타는 이번 연극을 "여전히 날카롭고 재치 있으며,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출연진은 '김씨' 역에 인스 최, 아내인 '엄마' 역에 에스터 정, 아들 '정' 역에 라이언진, 딸 '자넷' 역에 캘리서, 다양한 손님(손님, 경찰) 역에 브랜든 맥나이트가 캐스팅됐다.

<김스 컨비니언스>는 헌팅턴이 외부와 협업해 선보이는 셀렉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즌 구독자 및 플렉스스페이스 소지자들도 티켓을 이용할 수 있다.

티켓은 [huntingtontheatre.org](http://huntingtontheatre.org)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5부터 시작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샘 아담스, 알코올 도수 30% '극한 맥주' 출시

매사추세츠에서는 구매 가능, 뉴햄프셔·버몬트 등 15개 주에서는 불법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의 대표 맥주 브랜드 샘 아담스(Samuel Adams)가 알코올 30%의 최고 도수 극한 맥주를 선보였다.

보스턴비어컴퍼니(Boston Beer Company)는 22일, 자사의 한정판 라인인 유토피아스(Utopias) 2025를 미국 35개 주에서 판매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극한(Extreme) 맥주"라는 이름이 드러내듯 알콜 도수 30%를 자랑한다. 일반적인 샘 아담스 보스턴라거의 도수가 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다.

보스턴비어컴퍼니는 "이번 2025년판은 14번째 시리즈로, 30% ABV(Alcohol by Volume)라는 수십 년간의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다"며 "양조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해"라고 밝혔다.

유토피아스(Utopias)는 2001년 첫 출시 이후 2년마다 한정 생산되는 고급 배럴숙성 맥주로, 오

**<전체 기사 읽기>**  
랜 숙성 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개발된 효모와 배럴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번 제품은 최대 30년까지 숙성된 다양한 빈티지 맥주를 블렌딩했으며, 아이리시 위스키, 아마로네, 화이트 포트, 루비 포트, 까르가 벨로스, 코냑, 스카치 캐스크 등 여러 종류의 오크통에서 마무리 숙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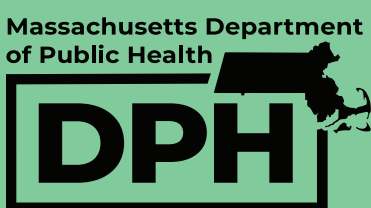
이번 '유토피아스 2025'는 루비빛을 띤 흑맥주 형태의 비탄산(non-carbonated) 제품으로, 테킬라 병을 연상시키는 세라믹 병에 담겼다. 소비자 권장 가격은 병당 240달러(약 33만 원)이며 25.4온스(약 760ml)를 담고 있다.

보스턴비어컴퍼니는 "유토피아스는 맥주이면서도 고급 증류주처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냉장 보관 없이 실온에서 1온스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보스톤 '노 킹스(No Kings)' 시위, 보스톤 커먼 가든 메워

### 보스톤, 콩코드, 우스터, 행햄, 프로빈스 타운 등에서도 시위 전국 2,600개 도시서 '트럼프 행정부 반대' 시위 확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보스톤 다운타운 소재 보스톤커먼을 가득 메우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8일 열린 이번 시위에는 인권, 기후변화, 이민,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1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설치하는 등 미국 전역의 시위 중 가장 큰 집회 중의 하나였다.

미국 전역 2,600여 개 도시에서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노 킹스(No Kings)' 시위에 참여해, 미국은 왕이 지배하는

국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임을 외쳤다.

매사추세츠 비영리단체 'Mass 50501'의 레베카 윈터 대표는 "오늘이 단 하루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알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ICE단속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법, 소비자 보이콧,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스톤의 비영리 라디오 WBUR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커먼에는 보

### 〈전체 기사 읽기〉

일스턴 거리에서 비컨 거리까지 수많은 주민들이 뺏뺏이 모였다. 리틀턴의 캐시 리건은 "매일매일 터지는 부조리한 일들, 거리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의료와 이민 제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미셸 우보스톤 시장, 안드레아 캠퐸 주 법무장관 등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우 시장은 "보스톤은 250년 넘게 자유와 정의의 도시였다"며 "이 곳에서는 매일이 '노 킹스의 날'이며, 매일이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우는 날"이라고 연설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해야 한다. 오늘이 자리에 선 수만 명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미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워렌 상원의원은 이번 시위를 "진정한 애국 행위"로 표현했다. 그녀는 "우리는 왕이 아닌 국민이 권력을 가진 나라임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보스톤뿐 아니라 우스터, 콩코드, 행햄, 프로빈스타운,

코네티컷 미스틱 등에서도 대규모로 개최됐다. 우스터 인스티튜트 공원에서 연설한 짐 맥커번 연방 하원의원은 "의회는 현재 기능을 상실했고, 법원은 트럼프의 임명자들로 채워졌다"며 "국민만이 이 '백악관의 괴물'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노 킹스' 시위를 "미국을 증오하는 집회"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정말 어리석은 발언"이라며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보스톤 시위 참가자들은 "이처럼 변화를 원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큰 희망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정책단체 '프로그레시브 매스'의 정책국장 조나단 콘은 "집회에 오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라며 "오늘 같은 행사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킹스'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으며, 현장에서 소수의 항의 시위가 있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 요동, 노년층 가입자 혼동

보험사들 수익성 악화되자 플랜 폐지 또는 축소 조정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유지 위해서는 보험료 더 부담도  
오픈 등록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기가 높았던 민영 보험사 운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하나 둘씩 폐지, 또는 축소되면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어드밴티지 플랜을 이용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최근 약값과 의료비의 급등, 가입자 증가, 연방정부의 지불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스톤글로브는 매사추세츠 주 내 세 개 주요 보험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약 7만 명, 즉 전체 가입자의 6분의 17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81세의 에드워드 데일리는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 이하 BCBS)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오랫동안 ‘굿딜’ 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그의 월 보험료는 87달러에서 108달러로 약 25%나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기본 메디케어 가입자 모두가 내야 하는 2025년 기준 월 185달러의 프리미엄이 추가된다. 데일리의 플랜은 초과 보장 범위도 축소됐다.

그는 “다른 회사로 옮기려 했지만,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보험료는 오히려 더 비쌌다” 며 “모두 크게 오르고 있다” 고 말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 1위 사업자인 포인트32헬스(Point32Health·하버드 필그림 및 터프츠 헬스플랜의 모회사)는 내년부

## 〈전체 기사 읽기〉

터 무보험료 PPO 플랜을 폐지하고, 보험료 없는 HMO 플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한다. BCBS도 무보험료 플랜을 없애고, 월 56달러를 부과하는 새로운 플랜으로 대체한다. HMO 플랜은 1차 진료의를 통한 진료 조정과 전문의 의뢰(referral)가 필요하지만, PPO는 환자가 별도의 의뢰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재편은 환자 진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CBS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매스 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 소속 1차 진료 의들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트워크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새 의사를 찾아야 하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수해야 한다.

BCBS는 또 다른 대형 의료기관인 베스 이스라엘 레이히 헬스(Beth Israel Lahey Health) 소속 1차 진료의들도 PPO 플랜에서 제외했다. 보험사와 병원 시스템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돈 문제라고 짚었다. 보험사가 지급하려는 진료비와 병원이 받아들이려는 수준의 격차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보스톤대 공중보건대학 앨런 세이거 교수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재정적 마찰이 계속되는 하나의 단면” 이라고 설명했다.

BCBS는 2021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360만 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억1,3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억8,5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BCBS 정부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크리스



타 바워스는 “업계 전체가 지금 구조적 격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BCBS는 내년 매사추세츠주에서 3개의 PPO와 4개의 HMO 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며,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거의 모든 개인 가입자가 올해와 동일한 플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 수가 2025년 3,490만 명에서 2026년 3,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 중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이용하는 비율도 50%에서 48%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오픈 등록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향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997년 ‘메디케어 + 초이스’(Medicare+Choice)로 시작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의료·약품 보장을 통합하고, 초과·시력·피트니스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거의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인기를 얻었다.

정부는 가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보험사

에 지급하고, 보험사는 그비용보다 적게 지출할 경우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약값 상승 등으로 비용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암 치료용 주사제 가격 상승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처방약 가격 계산 방식이 바뀌었고, 위험 점수(Risk Score)를 계산하는 방식도 개편되어 보험사가 받는 월 지불액이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메디케어에 대한 연방 정부 지급액을 약 5% 인상(250억 달러 규모)할 예정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의료비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2023년 의료비 지출이 9% 가까이 증가했다.

이익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시그나(Cigna)는 올해 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부문을 매각했고, BCBS버몬트를 비롯한 6개 이상 보험사가 내년 사업 철수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웰케어(WellCare)가 매사추세츠 시장에서 철수해 7,000명 이상이 다른 플랜을 찾아야 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하버드대, 재정난 속 인문 과학 박사과정 최대 75% 감축

## 2년간 신규 박사 선발 대폭 축소... 기부금세 · 재정 손실로 압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하버드대학교가 향후 2개 학기 동안 인문학과 과학 분야 박사과정 모집 인원을 대폭 줄인 다.

하버드 크립슨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 예술 · 과학대학(FAS)은 과학 분야 박사과정 입학 정원을 75% 이상, 인문학 분야는 60%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FAS의 후크스트라(Christopher W. Hoekstra) 학장은 지난 9월 내부 공지에서 “기부금세(endowment tax) 부과와 재정 손실이 주요 요인”이라며 박사 정원 축소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하버드는 지난 6월에 종료된 2025회계연도에서 1억 1,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에 더해 매년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금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버드 크립슨은 학내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자료로 이번 감축 규모를 보도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각 학과는 10월 24일까지 축소된 박사과정 정원 배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전체 정원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체 기사 읽기〉

보도에 따르면, 독문학과(German Department)는 내년부터 박사과정 신규 선발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학과(Sociology)는 2026~2027학년도에만 6명을 선발한 뒤, 그 다음 해에는 신입생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물학 관련 학과들도 대폭 축소된다. 유기 · 진화생물학(Organismic and Evolutionary Biology)은 3명, 분자 · 세포생물학(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은 4명, 화학 · 화학생물학(Chemistry and Chemical Biology) 역시 4명만 선발할 예정이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관계자는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대학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버드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혔지만, 재정 지출과 세 부담, 연방 보조금 불확실성으로 인해 운영 구조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24 대선에서 미국민의 투표 결과가 대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하버드 신입생, 아시아계 41%로 역대 최고... 흑인 · 히스패닉 비율 급감

▶▶1면에 이어서

전체 신입생 중 8%는 인종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버드는 백인 또는 복수 인종으로 자신을 밝힌 학생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올해 백인 및 복수인종의 입학 비율은 28.5% 인근으로 추정된다. 복수인종으로 밝힌 학생들은 각 인종 통계에 모두 반영되었기에 정확한 비율 산출이 어렵게 됐다.

하버드는 지난해부터 인종 데이터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학생 전체 대비가 아닌, 인종을 자발적으로 밝힌 학생들 중 해당 인종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여전히 숨겨진 8%가 남아 있는 셈이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밝힌 백인 학생은 전체 32%였다.

하버드 크립슨의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의 흑인 · 히스패닉 학생 감소는 예일과 프린스턴 등 다른 명문대학에서도 유사한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프린스턴은 올해 흑인 신입생 비율이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변화는 2023년 연방대법원이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s. Harvard) 판결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이후, 실제 입시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하버드의 학생 구성은 사회적으로 면밀한 관심을 받아왔다. 대학 측은 인종 구성의 변화가 미미할 경우, 반대 단체나 연방 정부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 반면, 소수인종 학생 비율이 감소할 경우 학생 사회로부터의 반발 가능성도 우려해왔다. 이번 통계는 이 같은 대학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학생비율의 증가가 향후 아시아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UCLA 사례로 보면 당초 아시아 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만 학교에 의한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 19 이후 5년 만에 SAT · ACT 등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한 첫 입시 결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첫 번째이며 정부의 하버드 탄압 과정 중에 발표

된 입학 통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예년보다 몇 달 늦게 연방 정부 제출 기한에 맞춘 이번 가을에 들어서야 신입생 구성 자료를 발표했다.

하버드에 따르면 지원자 수는 지난해 5만4,008명에서 4만7,893명으로 약 11% 줄었고, 합격률은 3.65%에서 4.18%로 상승했다.

하버드 입학및재정지원처장 윌리엄 R. 피츠시몬스는 성명을 통해 “입시 환경이 급변하고 코로나 19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029학번 신입생들은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버드의 전통을 이어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학생 비율은 전체의 16%로 지난해보다 3% 포인트 감소했다. 하버드가 5월에 발표한 등록 자료에서도 국제학생 비율은 15.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제학생의 등록률은 90%를 넘었으며, 8명은 입학에 1년 연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하버드의 학생교류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며 국제학생 입국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 명령으로 중단됐다. 또 일부 국가에는 별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최소한 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버드는 국제학생들에게 “하버드 입학 자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대학 등록을 허용” 하는 이례적 선택권을 부여했고, 대기자 추가 합격 발표도 6월 30일 이후까지 연장했다. 올해 하버드는 75명의 대기자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41명보다 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9학번 신입생의 전공 희망은 인문학 12.1%, 공학 25.2%, 자연과학 26.7%, 사회과학 34.5%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학생은 하버드가 새 재정지원 정책을 도입한 첫 학번이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올해 신입생의 45%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숙사비 등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MA서 9월 한 달 ICE 1,400명 체포...불안, 공포 증폭

### 절반 이상은 '중대한 전과' 없어... 이민자 사회 불안 확산 남미계 소비 위축...소상공인들의 사업체도 영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패트리엇 2.0 이민 단속에 9월 한 달 동안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1,4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번 패트리엇 2.0 작전의 결과를 발표하며 총 1,400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600여명이 중대 범죄 전과 또는 미결 범죄혐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집권 이후 공언한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

#### 〈전체 기사 읽기〉

환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집중 이민자 단속이다.

ICE는 이 가운데 23명의 전과자 사례를 공개하며 "살인, 강간, 마약밀매, 아동 성범죄, 폭력 조직 관련 혐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된 이민자의 나머지 절반 이상은 범죄 이력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으로 체포됐다.

ICE 보스톤 지역 집행·추방국(ERO)의 데이비드 웨슬링 국장 대행은 "이들은 미국 이민법을 무시하고 매사추세츠에 숨어든 자들"이라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 작전에는 관세국경및 국경보호청(CBP),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DSS), 연방 마셜 서비스국(US Marshals Service) 등 여러 연방 기관이 총동원되었다.

ICE는 이번 결과를 "경이적인 수준의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전직 ICE 관계자들은 이런 대규모 자원 투입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슨 하우저는 "이런 무차별적 이민자 체포는 실제적인 공공안전 향상에 효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며 "되려 공공안전 또는 국가 안보에 투입되어야 할 1만6천 명이 넘는 연방 요원을 본래 임무가 아닌 이민 단속에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오히려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E는 체포자 중 277명이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출국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밝혔으며, 6명은 국제 범죄 조직의 등록된 조직원, 일부는 관련 조직의 조력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ICE가 일

부 중범죄자 사례만 강조하며 단속의 폭넓은 피해를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스터 지역에서 ICE 활동을 추적해온 인권운동가 질리언 필립스는 "그들은 '최악의 범죄자'만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수년, 길게는 2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부모와 자녀, 발달 장애를 가진 청소년까지 끌고 간다"며 "대다수는 전과가 없거나 단순 교통위반 같은 사소한 이유로 체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ICE 고위 관계자들은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가 단속의 최우선 대상이지만, 불법 체류자는 누구든 체포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우저 전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단속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하는 이민자를 우선 단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짚었다.

9월의 패트리엇 2.0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한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작전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이 분리되고 장기 거주 이민자들이 연이어 체포되면서 불안과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소비자 층인 히스패닉 등 남미계들의 소비 축소로 매사추세츠 주내 소상공인 사업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대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사추세츠, 홋카이도와 자매주 협정 35주년 기념

## 홋카이도 대표단 매사추세츠 방문, 협정 재확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22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과 함께 매사추세츠주와 홋카이도 간 자매주 협정 35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서 힐리 주지사는 10월 22일을 매사추세츠주 '홋카이도의 날(Hokkaido Day)' 로 지정하는 주지사 선포문을 대표단에 전달했다. 또한 힐리 주지사와 하마사카 신이치 홋카이도 부지사는 자매주 협정을 재확인하고 학문, 교육,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확대를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힐리 주지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사추세츠와 홋카이도는 학생, 학자, 그리고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며 "오늘 우리는 그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키기로 약속했다" 고 밝혔다.

하마사카 신이치 홋카이도 부지사는 "홋카이도와 매사추세츠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약 150년 전 홋카이도 개척 시기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를 비롯한 매사추세츠의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공헌을 했다" 고 말했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매사추세츠와 홋카이도의 인연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매사추세츠대학교와 홋카이도대학교 간의 학생 및 학문 교류를 통해 이어져 왔다. 1990년에는 당시 마이클 두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요코미치 다카히로 홋카이도 지사가 자매주 협정에 서명해 교육·문화·스포츠·산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약속했다.

매사추세츠주는 한국과도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1991년에는 윌리엄 웰드 주지사가 한국 한미경

### 〈전체 기사 읽기〉

제협의회와 매사추세츠주 간 '한·매사추세츠 경제협력협정' 을 체결했다. 2011년에는 주태경제개발청의 그레고리 비알레키 장관이 서울 특별시와 생명과학 및 첨단기술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어 2018년에는 강원도 테크노파크와 매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MOITT)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티 프로젝트(Digital Healthcare City Project)' 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다만 자매결연(Sister State Agreement)은 없었다.

이번 홋카이도 대표단의 방문은 매사추세츠 홋카이도 협회와 주 국제무역투자청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덴마크,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만 등 다수의 국가 및 지역 정부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NOAA, 올해 겨울 평균보다 따뜻할 것, 눈은?

### ▶▶1면에 이어서

실제 평균기온은 평년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OAA 기상학자 앤서니 아투사(Anthony Artusa)는 "이제 겨울철 차가운 기단이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는다" 며 "캐나다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과거보다 빠르게 약화되며, 그 결과 뉴잉글랜드의 겨울은 점점 온난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메인만(Gulf of Maine)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약 2도 높아, 해안 지역의 냉각 효과가 약화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NOAA는 "따뜻한 해수면은 해안 기온 하강을 억제해 보스톤 등 연안 지역이 과거보다 더 온화한 겨울을 맞게 한다" 고 밝혔다.

이번 겨울 강수량은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평년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간 가뭄이 이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다" 고 지적한다.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건조한 날씨로 뉴잉글랜드 전역에 일시적인 가뭄이 발생했으며, 최근 한 차례의 노이스터(Nor'easter)가 상황을 일부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 기상학자들은 "겨울 가뭄이 봄철로 이

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 경고했다.

이번 겨울 기상 예보의 핵심 변수는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발생한 라니냐(La Niña) 현상이다. NOAA는 현재 약한 라니냐가 진행 중이며, 겨울 후반부에 북미 대기 패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북미의 제트기류를 강화해 간헐적인 한파와 폭설을 동반하지만, 뉴잉글랜드에서는 지역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 나타난다.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등지의 내륙 산악 지역은 눈이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고, 보스톤 등 해안 지역은 인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강설량이 평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NOAA는 매년 계절 중반에 기후 전망을 갱신하며, 해수면 온도·대기 순환·라니냐·엘니뇨 등 대규모 기후 요인을 종합 분석한다. 아투사 기상학자는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면 예보는 복잡해진다" 며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하겠지만, 단 한 번의 대형 폭풍이 전체 전망을 뒤흔들 수도 있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주택 공급 급증... 그러나 앞으로는 줄어들 듯

2035년까지 22만2천 호 목표 달성에 빨간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야심찬 주택공급 계획이 최근들어 급감하고 있는 건축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가 내세운 22만2천 채의 새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다.

싱크탱크 '보스톤 인디케이터스 (Boston Indicators)'가 공개한 올해 보스톤 주택 보고서 예비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은 급격히 늘었지만 건축 허가 감소로 인해 향후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매사추세츠의 주택 재고는 총 9만7,656호 증가했다. 이중 7만1,135호는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2024년 7월에서 2025년 7월 사이에만 4만여 호가 새로 공급됐다. 이는 할리 주지사 행정부가 내건 주택난 완화 목표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보스톤 인디케이터스의 루크 슈스터(Luc Schuster) 사무국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세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Zillow)에 따르면 올해 매사추세츠의 주택 가격은 1.2% 상승에 그쳤고 평균 임대료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들어 신규 건축 허가가 급감하면서 향후 2~3년간 공급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슈스터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대부분의 신규 주택은 2021년이나 2022년에 허가된 프로젝트로, 당시에는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았다"며 "올해 매사추세츠의 건축허가 건수는 2021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기사 읽기>**

그는 "허가 건수는 향후 몇 년간 새 주택이 얼마나 추가로 공급될지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인데, 최근의 급감세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먼저 주와 지방정부가 zoning(조닝)규정을 완화해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슈스터는 강조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대부분 토지는 큰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건설만 허용되도록 규제돼 있다"며 "이는 가장 비싼 형태의 주택인데, 법적으로 그 외의 주택 유형을 지을 수 없도록 한 행정 조닝 제도가 공급 제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 자재에 대한 관세 인상, 인력난 등도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매사추세츠의 주택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확대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앞으로는 건축 허가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다시 공급 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할리 주지사의 '2035년 22만2천 호 건설' 약속이 실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시장 여건 개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 외국 크레딧 카드로도 서울 대중교통 결제 가능해진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신용카드를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루프(Open-loop)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지금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충전해야 했고,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카드 구매 없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 1,636만 명에 달했고, 올해는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관광도시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접근성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 카드사, 정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우선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도

**<전체 기사 읽기>**

교통카드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9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주요 25개 역사에 신형 키오스크가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44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폰 사용자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외 신용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연내 도입된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코리아투어카드 앱'을 통해 해외카드로 충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폰에서도 전환 없이 바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MV 국제 결제 표준 기반의 오픈루프 결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1단계(2025~2026년)에서는 버스 단말기에 EMV 인증 모듈을 설치하고, 결제 서버를 구축한다. 이어 2단계(2027년)에는 지하철 1~8호선 단말기를 교체하고, 3단계(2028~2030년)에는 마을버스와 민자철도 등 수도권 통합 환승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관광객 발길 이어지는 서울 가을의 감성 명소 10곳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만추의 정취가 깊어지는 10월 시민들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가을 감성 명소'는 단연 '궁'이었다.

서울시가 '서울 관광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복궁은 SNS 언급량 3만32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창덕궁·창경궁(1만3,146건, 5위), 덕수궁(1만1,169건, 7위)도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궁에서 보는 단풍이 아름답다", "경희루의 야경이 물에 비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후기와 함께 한복체험, 야간관람 등 체험 후기 게시가 활발했다.

서울숲은 2위(2만3,873건)를 기록하며 가을 산책 명소로 꼽혔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길, 성수구름다리에서 보는 노을 등 다양한 포토존이 인기를 끌었다. 청계천은 1만5,374건(4위)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청계천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이 약 9만6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이 그 뒤를 이었다.

남산은 애니메이션 '케데헌'의 인기로 젊은 층과 외국인 방문이 급증했다. 남산서울타워와 함께 언급된 'K팝', 'K콘텐츠'



등 관련 키워드는 올해 6월 대비 8월 두 배 이상 늘었고, 외국인 방문자 수도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SNS 언급 1만993건으로 10위권에 들었으며, 방문객 중 절반가량이 비서울권에서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비율이 25%에 달해 MZ세대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인기 명소의 혼잡도, 도로 및 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data.seoul.go.kr/SeoulRtd)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음은 감성 명소 순위다.

- 1위: 경복궁 - 30,222건
- 2위: 서울숲 - 23,873건

- 3위: 더현대서울 - 16,419건
- 4위: 청계천(청계광장 포함) - 15,374건
- 5위: 창경궁·창덕궁 - 13,146건
- 6위: 남산서울타워 - 12,214건
- 7위: 덕수궁 - 11,169건
- 8위: 여의도 한강공원 - 10,993건
- 9위: 노들섬 - 8,636건
- 10위: 명동거리 - 8,299건



## 쌀쌀한 보스턴 가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빵으로 완성하는 여유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쌀쌀해진 가을, 아기자기하고 멋스러운 보스턴에서의 가을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카푸치노 한 잔에 맛있는 빵이 아닐까.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찰스 강변을 거닐다가, 혹은 백베이의 고풍스러운 거리를 산책하다가 문득 추위에 몸을 녹일 곳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럴 때 들어가기 좋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베이커리와 카페가 보스턴 곳곳에 숨어 있다.

보스턴의 가을은 특별하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도시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런 계절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갓 구운 빵의 향기를 즐기는 것만큼 완벽한 순간도 없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맛과 새로운 경험이 어우러진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요즘 보스턴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감성을 함께 나누는 베이커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의 맛과 미국의 스타일이 만나는 이 특별한 공간들은, 타향살이를 하는 한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새로운 음식을 찾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곳들을 소개한다.

### Pixlcat Coffee - 하와이안 버터모찌와 특별한 마차의 만남

주소: 227 Dartmouth St, Boston, MA 02116 (Back Bay)

웹사이트: [https://buttermochi.square.site/?location\\_id=L01237FYG6D7S&fulfillment=PICKUP#R5VL3KKRE3G7VY5CUY2P5ZND](https://buttermochi.square.site/?location_id=L01237FYG6D7S&fulfillment=PICKUP#R5VL3KKRE3G7VY5CUY2P5ZND)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보스턴까지 진출한 Pixlcat Coffee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다. 이 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버터모찌 머핀

### (전체 기사 읽기)

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떡의 쫄깃한 식감과 하와이안 스타일의 달콤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쌀가루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글루텐프리인 이 머핀은, 클래식, 우베, 흑임자, 말차, 초콜릿, 스모어, 그리고 베이컨 체다가 들어간 브레퍼스트 버전까지 다양한 맛으로 준비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과 일본 문화에서 익숙한 맛들이 곳곳에 녹아있다는 것이다. 흑임자(Black Sesame) 버터모찌는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고, 일본 우지산 ceremonial grade 말차를 사용한 말차 버터모찌는 말차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보라색이 선명한 우베(필리핀 자색 고구마) 화이트 초콜릿 버전도 시각적으로나 맛으로나 만족스럽다. 작은 한 조각에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한 입 베어물면 집에서 만든 듯한 포근함이 느껴진다.

음료 메뉴도 예사롭지 않다. 가장 인기 있는 'Dopo Panna Latte'는 이탈리아어로 '이후'를 뜻하는 'Dopo'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차가운 우유 위에 휘핑크림을 올리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마시는 비엔나식 아인슈페너에서 영감을 받았다. 허니콤, 우베, 바닐라, 스트로베리, 흑임자 등 다섯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 말차 음료도 다양한데, 일본 우지산 유기농 ceremonial grade 말차를 사용해 품질이 뛰어나다. 아이스 우베 말차는 말차의 씹새름함과 우베의 고소한 단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 Elephantine Bakery - 이집트계 부부가 만들어낸 지중해와 유럽의 조화

주소: 332 Congress St, Boston, MA 02210 (Fort Point)

웹사이트: <https://www.elephantinebakery.com/about>

포츠머스에서 시작해 2025년 9월 보스턴 포트포인트에 두 번째 매장을 연 Elephan-

tine Bakery는 이집트계 미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17년 전 보스턴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커리어를 걷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 답은 바로 '빵' 이었다. 비에누아즈리(프랑스 식 페이스트리)와 이집트계라는 뿌리와 지중해 지역의 다양한 맛에 대한 호기심이 어우러져 Elephantine만의 정체성이 탄생했다. 'Elephantine' 이라는 이름 역시 나일강의 고대 도시 엘레판티네섬에서 영감을 받아, 빵의 유구한 역사와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상징한다.

이곳의 빵과 페이스트리는 모두 매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어진다. 전통적인 프랑스 기법을 따르면서도 지중해의 향과 재료를 조화롭게 녹여냈다. 바삭한 반죽 속에 달콤한 아몬드 크림이 가득한 아몬드 크루아상, 중동의 향신료 카다멈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다멈 번, 전통 독일식 방식으로 구워 걸은 짭짤하고 속은 쫄깃한 프레첼이 대표적이다. 터키식 포치드 에그는 요거트와 향신료가 어우러진 독특한 아침 메뉴로, 한국의 아침 식사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 집의 시그니처인 Elephantine 에그 샌드위치는 완벽히 조리된 달걀, 신선한 채소, 직접 구운 빵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진한 핫초콜릿과 카다멈 커피는 그 풍미를 완성한다.

월요일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화요일은 휴무다. 앞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소규모 플레이트 요리와 맥주, 와인도 제공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보스턴의 가을, 따뜻한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Elephantine Bakery를 꼭 찾아가 보자.

### PRB Boulangerie - 보스턴 프렌치 베이커리의 전설, 바이럴 크루키의 본거지

주소: 295 Third St, Cambridge, MA 02142

(Kendall Square 본점) / 560 Harrison Ave, Boston, MA 02118 (South End) / Somerville 지점 / Time Out Market Boston (Fenway)

웹사이트:

<https://www.prbboulangerie.com/>

보스턴 프렌치 레스토랑계 베테랑 Loic Le Garrec가 약 20년 전 창업한 Petit Robert Bistro에서 시작해, 현재 Batifol, Marseille, 그리고 PRB Boulangerie를 운영하고 있다. PRB는 원래 이 레스토랑들에 빵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프랑스 훈련 베이커 François Jomain의 리더십 아래 보스턴 최고의 베이커리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프렌치 레스토랑의 퀄리티는 빵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이곳의 크루아상은 버터가 층층이 쌓인 반죽이 오븐에서 부풀어 걸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완벽한 식감을 자랑한다. Pain au Chocolat, Croissants aux Amandes(아몬드 크루아상), Financier, Pain au Raisin 등 정통 프렌치 페이스트리가 매일 아침 갓 구워진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말 한정 크루키(Crookie)다. 파리에서 시작된 바이럴 sensation인 크루키는 버터 가득한 크루아상 층 안에 초콜릿 칩 쿠키를 구워 넣은 것으로, 2024년 초 PRB가 선보인 이후 주말마다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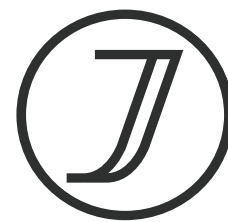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Kendall Square 본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코르타도, 말차라떼 같은 스페셜티드 링크도 제공한다. South End, Somerville, Time Out Market(Fenway)에도 지점이 있어 보스턴 어디서든 PRB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꼭 일찍 가서 크루키를 맛보길 추천한다. 늦으면 품절될 수 있으니 말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美 LA국감서 유승준 비자문제 또 도마...김태호 "공권력 지나쳐"

###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이유 질의...LA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의원들, 이민단속 대응·서류미비자 보호 등 추궁·당부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통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만3천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 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최신 자료의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를 확인해보니 B1·B2 비자의 경우 올해 1~5월 건수가 7천400건으로, 작년 동기간 4천300건 대비 약 40% 줄었다"며 "지금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또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 당국간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지난번에 합의된 게 미 이민당국과 지방 정부, 우리 공관 간의 협의체를 꾸려 상시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접촉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영사는 "그전부터 ICE나 CBP(세관국경보호국)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고, 이제 그보다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22일째 美셧다운, 역대2위 최장기록...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 예산안 교착 지속...연방정부 직원들, 급여끊겨 푸드뱅크 줄 서기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중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22일(현지시간)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로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미 의회가 임시예산안 처리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3주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셧다운 국면에서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열두번째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21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22시간 이상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섰다.

제프리 의원은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에서 뉴욕주에 정치 기반이 있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킵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 "자기들 지역구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급진 좌파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셧다운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인해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워싱턴DC 등지의 푸드뱅크에 무료 식량을 지급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료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영리단체다. CNN 방송이 지난 21일 워싱턴DC의 푸드뱅크에서 만난 연방정부 계약직 직원인 서머 커크식은 두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린 끝에 통조림과

건조식품이 담긴 상자를 받았다. 상무부 산하 농촌수출센터의 시장 조사 분석가인 커크식은 "다음 주 월세가 나가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받겠다"며 "지금은 푼돈도 아껴

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커크처럼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 없이 일하고 있는 연방정부 직원은 현재 140만명에 달한다고 CNN은 전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https://mass.gov/CBHC)

# APEC앞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추~~-트럼프 정치적 결단 남았다

### 김정관-김용범 2주연속 방미협의 마무리...트럼프, '분납' 수용할지 관건 3천500억불 대미투자 합의여부에 他안보·경제 합의 발표도 연계될 가능성



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무역 협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흥정구 특파원 =** 현 한미 정상의 두번째 회담 기회를 제공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경주)를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양국간의 긴박한 대면 협의가 22일로 사실상 종료되면서 결국 두 정상의 결단만 남은 형국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협상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러트닉)과 협상한지 불과 6일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후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답했다.

7월말 큰 틀에서 타결된 무역협의를 매듭짓기 위한 고위 당국자들 간의 대면 협상이 일단락됐다는 것은 결국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APEC 계기 최종 합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 펀드의 현금 비유, 투자처 선정과 관련한 한국의 목소리 반영 방안, 분할 납입의 기간 등이 최종 쟁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김용범

실장이 16일과 22일 잇달아 한미협상에 직접 참여한 만큼 이 대통령의 입장은 최근 한미협상에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결국 공개 석상에서 '전액 선불'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난색을 표해온 한국의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절충점이 찾아질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정관 장관은 20일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3천500억 달러의 구성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미투자금납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2029년 1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안에 한국의 투자를 받아냄으로써 그것을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가 '납입 기간'에 대해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우선 관건인 것이다.

일부 한국 언론은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이후로까지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에 동의할지가 최종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간의 막바지 협상에는 현재 희토류 수출 통제(중국)와 대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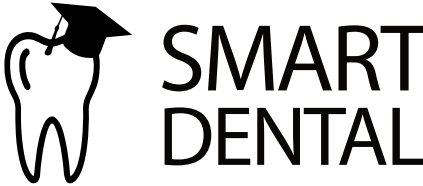
100% 관세 인상(미국) 카드로 맞서고 있는 미중의 대치 국면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 계기에 열릴 전망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의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뼈격대는 모양새는 보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APEC 계기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필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규탄하며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단결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미중관계가 갈등할 수록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APEC 전에 무역과 관련한 최종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이벤트가 열리거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사실관계 설명자료·fact sheet)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미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때 의견접근을 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동맹 현대화 방안,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등 안보 및 경제 관련 다른 합의 사항들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24th - OCT. 30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GALBI CHICKEN

Tender chicken glazed in sweet, savory galbi sauce, sizzling hot from the pan. Caramelized, juicy, and full of flavor!  
 달콤짭조름한 갈비소스로 윤기 나게 구워낸 부드럽고 촉촉한 갈비치킨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Green Onion 파 BUN FOR <b>\$1.99</b>	Lotus Root 연근 LB <b>\$1.99</b>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b>\$2.99</b>	Lago Grape 라고 포도 6 LB/BOX <b>\$17.99</b>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2 LB/PKG <b>\$9.99</b>	Hass Avocado 해스 아보카도 EA <b>\$0.79</b>	Jumbo Blueberry 점보 블루베리 9.8 OZ/PKG <b>\$4.99</b>
Sand Pear 샌드 배 LB <b>\$1.49</b>	Shanghai Choy 청경채 LB <b>\$0.99</b>	Small Chestnut 토종밤 LB <b>\$4.99</b>	Korean Radish/Napa Cabbage 한국 무/배추 BOX <b>\$9.99</b>	Fuji Apple 후지사과 LB <b>\$1.49</b>	Young Radish/Baby Radish/Baby Napa 총각무/열무/풋배추 BUN FOR <b>\$1.99</b>	Sweet Bok Choy 와와초이 LB <b>\$1.29</b>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Fresh Beef Heel Meat 생소 사태 LB <b>\$9.99</b>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6.99</b>	Fresh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b>\$4.99</b>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b>\$3.99</b>	Marinated Thinly Sliced Boneless Pork Shoulder Butt -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b>\$5.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b>\$8.99</b>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b>\$7.99</b>	Frozen Lologo Squid 한치 20-25 CM/LB <b>\$5.99</b>
TONGTONGBAY Frozen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홍합살 PRODUCT OF CHILE 200-300'S/LB <b>\$2.99</b>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b>\$2.99</b>

###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100% California Grown Medium Grain Brown Rice 하루하루 현미쌀 15 LB <b>\$11.99</b>	H MART SMART CARD ONLY OTOK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b>\$16.99</b>
H MART SMART CARD ONLY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b>\$6.99</b>	H MART SMART CARD ONLY LOTTE Milkis Cream Soda Drink Variety Pack 롯데 밀키스 버라이어티팩 8.45 FL OZ X 24 CANS/BOX <b>\$11.99</b>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b>\$10.99</b>	SAMYANG Meptang Black Pepper & Beef/Meptang Garlic & ClamRamen 삼양 맵탱 흑후추 소고기/마늘조개 라면 3.88 OZ X 4 EA/PKG <b>\$4.99</b>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b>\$7.99</b>	KWANG CHEON NONGHYUP Roasted Green Tea Seaweed 광천농협 들자반 1.76 OZ <b>2\$5</b>	HAIO Premium Sesame Oil 해오름 참진화 참기름 56 FL OZ <b>\$17.99</b>
K TOWN Sliced/Tteokbokki Rice Cakes 케이타운 떡국/떡볶이 떡 2.2 LB <b>\$2.99</b>	TONGTONG BAY Mixed Fish Cakes 통통배 모듬어묵 17.63 OZ <b>\$3.99</b>	MARUCHAN Mama Yaki-soba Stir Fry Noodles with Seasoning Sauce Base 마루찬 아끼소바 16.93 OZ <b>2\$5</b>	SAMJIN Fried Fish Cake 삼진어묵 사각어묵 ORIGINAL/VEGETABLE 2.2 LB <b>\$4.99</b>	HAIOR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b>\$4.99</b>
ORION Pocachip 오리온 포카칩 ORIGINAL/ONION 4.79 OZ <b>\$2.99</b>	HAITAI Oh Yes! 해태 오예스 COOKIE & CREAM CAKE 12.6 OZ <b>\$4.99</b>	EVA Soft Bath Slippers 퓨어 EVA 소프트 성인용 욕실화 <b>\$12.99</b> (PAIR) <del>\$17.99</del>	ZOJIRUSHI Stainless Steel Mug 조지루시 스테인레스 머그 WHITE/BLACK <del>\$47.99</del> <b>\$21.49</b> (16 OZ EA)	HANKOOK Pot Earthenware 한국도자기 내열 독배기 LINE/AHREUM 6.3 INCH \$44.99 7.1 INCH \$52.99 <b>\$27.99</b> (EA) <del>\$32.99</del>

###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leek@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이진</b> 978.494.2043 jeonk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희</b> 617.447.0501 miho@bostonpremierrealty.com	 <b>파나무</b>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b>장희희</b> 978.866.3248 heehi@bostonpremierrealty.com	 <b>이은주</b> 401.538.3397 eunju@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영</b> 617.338.0787 soyoung@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정</b>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b>한수진</b> 617.528.6973 sujin@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희</b> 213.503.0387 so@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희</b> 413.507.1400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88 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은순</b> 781.836.3412 eun@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eesoo@bostonpremierrealty.com	 <b>장희영</b> 617.915.1162 heeyou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준규</b> 617.543.0728 jungu@bostonpremierrealty.com	 <b>박은희</b> 404.641.9192 eunhee@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ang</b> 248.449.0117 ja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hye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희 권</b> 781.596.0409 kate@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당국, 신원 특정해 추적 중...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가담자 약 1천~2천명 추산"  
 "李대통령 발본색원 때까지 조직 사할 걸고 국제범죄 등 해결' 국정원에 지시"  
 "범죄조직 본거지 이동 대비 캄 인접국과 공조 강화...프린스그룹 제재국과도 협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

동원해 8일 만에 피 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

공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지칭한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와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의 이용 현황을 볼 때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천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에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수범이 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들고가 범죄 조직에 전달하면 그 통장에 우리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자금이 송금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우리 국민이 그 자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고 한다"고 범죄 수범을 설명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으로, 여기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와의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고 범죄도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할을 걸고 국제 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으며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력을 대폭 보강했고 캄보디아 정부 및 수사 당국과 협력 중이다.

또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범죄 조직이 인접 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 국가의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린스 그룹'에 대해 제재를 시작한 국가들의 정보·수사 기관과도 스캠 범죄자 배후 추적, 자금 차단 등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지에서 검거된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고자 주변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잠입하는 사례 등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보위에서는 이날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고 국내적으로 호소하고, 국제 사회에는 북한에 아무리 많은 제재를 가해도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가 많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는(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가구공장 알바 하러"...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조직적 거짓말'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중국인과 한국인 총책 아래 팀을 나눠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국내 송환 전 외교부 직원과 경찰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 관리자 A씨는 조직원 일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되자 이들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캄보디아 입국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금된 조직원 전원에게 "가구 공장에서 일하려다 잡혔다고 말하라.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라. 캄보디아 경찰에게 돈을 주고 작업할 테니 모두 풀려나면 시아누크빌에 있는 사무실로 가 같이 이동해 계속 일할 수 있다" 등의 지령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송환 피의자들은 현지 이민청에 구금된 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영사, 한국 경찰과의 면담에서 "가구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며 입국 경위를 거짓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0여명은 영사에게 인적

사항까지 허위로 진술했다 등 통탄할 정도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번 송환에 앞서 검거된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조직 관리자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미화 500달러를 주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과 송환 시 휴대전화를 캄보디아 유치장에 두고 가며, 송환 후 경찰에는 '현지 경찰에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석방되면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직 실장이 한국에 입국한 뒤 조사를 받고 곧바로 해외로 도주한 전례도 있다.

앞서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송환 피의자 40여명은 전날 전원 구속됐다.

사항까지 허위로 진술했다 등 통탄할 정도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번 송환에 앞서 검거된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조직 관리자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미화 500달러를 주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과 송환 시 휴대전화를 캄보디아 유치장에 두고 가며, 송환 후 경찰에는 '현지 경찰에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석방되면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직 실장이 한국에 입국한 뒤 조사를 받고 곧바로 해외로 도주한 전례도 있다.

앞서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송환 피의자 40여명은 전날 전원 구속됐다.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진법 홍성 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OCT. 23<sup>RD</sup> - OCT. 30<sup>TH</sup>, 2025

LIMIT 2

**NONGSHIM**  
**Snack Mix**  
**농심**  
**스낵믹스**

17.9 OZ/PKG

**\$8.99**



LIMIT 2

**HELLO!**  
**Laundry**  
**Drying Rack**

**헬로!**  
**빨래**  
**건조대**

REGULAR  
 56 X 23 X 37 INCH

**\$24.99**

LARGE  
 STAINLESS STEEL  
 61 X 30 X 78 INCH

**\$3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류승룡 "꼰대 '김부장, 전 세대 공감할 현실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고기혜 기자 = "지금 제 상황을 그린 작품 같았어요. 전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이 느껴지고, '영포티'라는 슬픈 말도 나오고 있죠. 이 작품을 통해 각 세대 간에 이해의 폭이 생겼으면 했어요."

배우 류승룡은 22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 호텔에서 열린 JTBC 새 토일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 이야기) 제작발표회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작품에 투영됐다고 말했다.

'김부장 이야기'는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입사 25년 차 세일즈맨의 고민과 성찰을 담은 드라마다.

류승룡은 서울 자가와 대기업, 부장이라는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김낙수 부장을 연기한다.

명세빈은 주부로 살아오다 남편의 위상이 흔들리자 생활 전선에 뛰어든 아내 박하진 역을, 차강윤은 아버지처럼 평생 한 직장에 묶여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아들 김수겸 역을 맡았다.

류승룡은 실제 50대의 현실을 살아오는 자신에게 이 드라마가 '선물'처럼 다가왔다고 했다.

그는 "아마 우리(50대)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대, 끝 세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요즘"이라고 토론했다.

이어 "이 작품이 매력적인 것은 과거나 미래,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며 "김부장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누군가의 미래, 과거, 혹은 현재의 이야기를 하

고 있어서 전 세대를 아울러 공감할 수 있는, 나를 투영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류승룡은 우리 주변에 흔한 '꼰대' 그 자체인 김낙수를 연기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꼰대력'을 새삼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있는 꼰대들의 모습이나, 내 안에 있는 꼰대의 모습도 담아 내려 했다"며 "꼰대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서사가 있고 책임감도 있기에 미워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려 했다"고 덧붙였다.

명세빈과 차강윤 역시 이 작품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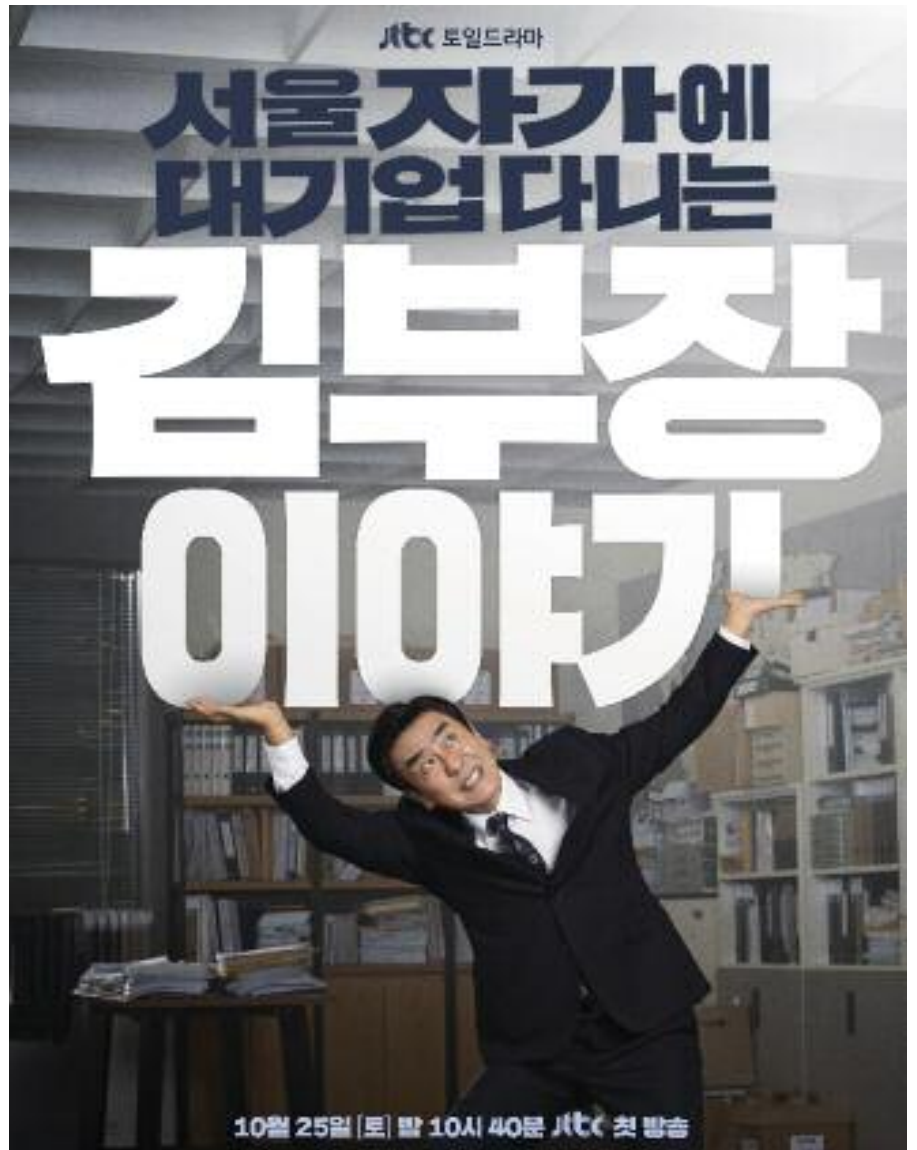
명세빈은 "제 주변 친구들도 실제 본인들에게 닮은 이야기여서 더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와닿는다고 했다"며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를 이해하고, 어른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드라마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차강윤도 "촬영하는 내내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났다"며 "이 작품을 통해 2030 세대가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기할 때 최대한 아들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앞서 네이버웹툰으로 공개돼 큰 인기를 끈 이어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연출을 맡은 조현탁 감독은 "처음 원작 소설을 접하자마자 총 세 권을 단숨에 읽었다"며 "주인공 김낙수가 저와 비슷한 연배라 그런지 완전히 몰입했고, 너무 연출하고 싶었다. 원작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작품은 류승룡 배우가 김낙수 역할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작과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엔 원작의 송희구 작가님이 촬영 현장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본



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 작품은 류승룡이 지난 2010년 MBC '개인의 취향' 이후 15년 만에 선보이는 드라마다.

류승룡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시청률 부담도 크다"면서도 "조심스럽지만 (시청률) 두 자리는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 작품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드라마"라며 "(김낙수는)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직함 등 그동안 쫓던 가치가 다 없어지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gahye\_k@yna.co.kr

# 엔믹스, 믹스팝 황금비율 찾았나... '블루 밸런타인' 음원 첫 1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엔믹스가 정규 1집 '블루 밸런타인'(Blue Valentine)과 동명 타이틀곡으로 음반과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2월 데뷔해 여러 장르를 한 곡에 섞는 이른바 '믹스팝'을 똑실히 들려준 멤버들은 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곡 구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블루 밸런타인'은 지난 20일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를 휩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를 비롯해 쟁쟁한 K팝

스타들이 버티는 차트에서 데뷔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상 고지를 밟은 것이다.

엔믹스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엔믹스의 도전적인 음악과 매력이 가득 실린 첫 정규 앨범으로 '커리어 하이'(자체 최고 성적)를 기록하고 좋은 반응을 얻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라며 "엔믹스 붉은 온다"며 많은 분이 저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써 주신 댓글도 기억에 남는다. 엔믹스다운 개성을 마음껏 펼치도록 응원해 주시고 멤버들의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걸그룹 명가'로 불리는 대형 기

회사 JYP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엔믹스는 데뷔 초부터 멤버들의 빼어난 라이브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엔믹스가 '회심의 한 방'으로 내놓은 '블루 밸런타인'은 귀에 감기는 멜로디가 호평받으며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발매 일주일 만에 차트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이 곡은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기타 리프가 뽀빠 리듬과 어우러진 노래다. 서로의 감정이 충돌한 지점에서, 차가운 마음에 불을 피워내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엔믹스는 "멜론 '톱 100' 1위를 확인했을 때 팬 여러분이 가장 먼



저 떠오르면서 감격스러웠다"며 "'엔씨'(팬덤명)의 지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곡이 실린 정규 1집도 한터차트 기준 발매 첫 일주일간 64만5천장이 팔리며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다.

# ▶▶ Meet Me at

# the MFA ▶▶ Fall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 Open House

## Indigenous Peoples' Day

- ▶ Monday 10/13
- ▶ 10 am–5 pm
- ▶ Free admission for MA residents



### Special Event

## Diwali

- ▶ Thursday 10/23
- ▶ \$5 admission after 5 pm

### Special Event

## UNIQLO Free Admission Day

- ▶ Saturday 10/25
- ▶ 10 am–5 pm



#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9) HSA, 트리플 세금 혜택

투자 원금, 투자 수익, 그리고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완벽한 투자'가 실제로 존재할까? 놀랍게도 현실에 있다. 바로 HSA(Health Savings Account, 건강 저축 계좌)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HSA를 단순히 의료 보험에 딸린 부수 혜택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HSA는 모든 세제 혜택을 갖춘 '최강의 은퇴 투자 계좌'다. 의료비 계좌가 아니라, 노후 자산을 불리는 전략적 투자 도구로 봐야 한다.

고액 공제 건강보험(HDHP)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HSA에 돈을 넣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은 최대 \$4,300, 부부는 \$8,550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1,000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HSA의 세금 혜택은 강력하다. 예를 들어 뉴욕의 고

세율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급여 \$1는 세후 약 \$0.61만 남지만, HSA에 넣은 돈은 전액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8,000씩 HSA에 넣고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한다면 13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다. 투자금 전액이 세금 공제를 받고, 투자 수익 또한 과세가 유예되므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401(k)보다 HSA가 더 뛰어난 이유는 바로 인출 시 비과세 때문이다. 401(k)은 은퇴 후 인출 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HSA는 의료비로 사용하면 인출 시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HSA를 단순한 의료비 지출 계좌로만 사용한다. 실제로 2023년 HSA 계좌의 절반 이상에서 인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복리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다. 더 큰 문제는 HSA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이다.

HSA는 401(k)처럼 인덱스펀드 등에 투자해야 자산이 불어난다. 지난 10년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3%를 넘었다. 의료비로 쓰기 전까지는 HSA를 장기 투자 계좌로 적극 운용해야 한다.

HSA는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은 물론, 치과·안경·약값, 그리고 은퇴 후 메디케어 보조보험료나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은퇴 후 의료 관련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HSA는 훌륭한 노후 자금원이 된다.

별금 없는 인출을 위한 핵심 전략

• 65세 이전: 의료비가 아닌 목적으로 인출하면 금액 전체에 소득세와 20% 벌금이 부과된다. 단기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 65세 이후: 의료비가 아니더라도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401(k)처럼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10월은 직장 복리후생(Benefit) 플랜을 선택하는 시기다. HSA를 단순히 의료비 지출용 계좌가 아닌, 노후 자산을 키워주는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HSA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30년 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세상에 '세금 없는 투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HSA만큼은 그 예외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SPECIALS FROM JEONBUK STATE



# 전북특별자치도 특관전

JEONBUK STATE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H Mart에서 만나보세요!  
 Save on flavors from the "Foodie Capital", Jeonbuk State,  
**Only at H Mart. OCT. 24th - NOV. 6th, 2025**



Namwon Chueotang  
 남원 추어탕 17.63 OZ

~~\$9.99~~  
**\$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하츠투하츠 "쿨하고 시크한 매력으로 시선 확실히 사로잡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해 들려드린 곡을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어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첫 미니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카르멘)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으로 큰 관심 속에 지난 2월 데뷔한 하츠투하츠가 20일 첫 미니앨범 '포커스'(FOCUS)로 '인기균 히기'에 들어갔다.

하츠투하츠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연 신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이번 음반은 하츠투하츠만의 색깔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는 앨범"이라며 "'더 체이스'(The Chase)가 우리의 시작을 알리고, '스타일'(STYLE)로 우리에게 대한 궁금증을 늘려나갔다면, 이번 '포커스'로 확실히 시선을 사로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더 체이스'나 발랄한 '스타일'과는 또 다른 쿨하고 시크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포커스'를 비롯해 비밀을 이야기하는 소녀

들의 밤을 애플 파이를 나누는 파자마 파티에 비유한 '애플 파이'(Apple Pie), 뉴잭스윙 스타일의 선공개곡 '프리티 플리즈'(Pretty Please), 로맨틱한 분위기의 시티팝 '플러터'(Flutter), 알앤비(R&B) 기반의 팝 발라드 '블루문'(Blue Moon) 등 여섯 곡이 수록됐다.

'포커스'는 빈티지한 피아노 리프가 돋보이는 하우스 장르 기반의 곡으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시크한 보컬이 어우러졌다. 하츠투하츠 멤버들이 곡에서 온 신경이 상대에게 집중된 상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가사에는 '모두 하츠투하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멤버 스텔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마치 주문에 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려야 하니 고민도 연구도 많이 했다.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의 안무를 만든 댄서 조나인이 '포



커스' 퍼포먼스 디렉팅을 맡았다.

지우는 "안무 수업을 일주일 내내 하루 4~5시간씩 들었다"며 "'포커스' 안무를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살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SM 선배인 강타는 올해 SM 타운 콘서트에서 '합(合)'이 중요하다. 멤버들끼리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좋은 무대를 만드는 비결에 관해 조언했다고 한다. 멤버들은 이에 따라 서로 호흡을 맞추며 피드백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에이나는 "다인원 그룹인 만큼 에너지와 칼군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장점"이라며 "무대를 보면 노래가 더욱 좋아진다는 반

응이 많아 뿌듯하다.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안도 "저희가 다인원인데도 한명 한명의 개성이 잘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무대에 진출할 것'을 알아봐 주는 분이 있구나 하며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데뷔 8개월을 맞은 하츠투하츠는 짧은 기간임에도 벌써 세 번째 활동에 나서게 됐다. TV 음악 프로그램, SM 타운 콘서트, 대학교 축제 등 여러 무대에 오르며 성장을 실감한다고 한다.

스텔라는 "데뷔 초에는 카메라를 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관객과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관

객들이 우리와 눈도 마주치고 때창도 해 줘서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우도 "데뷔 초보다 무대가 다들 편해졌다"며 "안무의 '칼각'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개성이 여유와 함께 나오게 된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각종 차트 1위를 당면한 목표를 꼽았다.

에이나는 "이번에도 음악 방송 1위를 하고 싶고, 음원 차트 1위도 꼭 해 보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tsl@yna.co.kr

10월 26일 - 11월 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조금씩 이루어지는**

- 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소띠 | 한 걸음 물러서서**

- 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겠습니다. ●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

**범띠 | 현실에 만족하고**

- 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체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토끼띠 | 애정이 더 깊어지는**

- 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갈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애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갈등이 있던 부부나 연인에게도 화합이 보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9, 1일 길일, 28, 31일 주의.

**용띠 | 차분한 마음으로**

- 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0, 31일 길일, 27, 1일 주의.

**뱀띠 | 미리 대처하는**

- 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28, 31일 길일, 30, 1일 주의.

**말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 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9, 1일 길일, 27, 31일 주의.

**양띠 | 가슴을 활짝 열고**

- 운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8, 29일 길일, 26, 1일 주의.

**원숭이띠 | 행복하고 편안한**

- 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6, 31일 길일, 27, 28일 주의.

**닭띠 |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 운수: 그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이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연인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

**개띠 | 적당한 선에서**

- 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30일 길일, 27, 29일 주의.

**돼지띠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 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



## '굿뉴스' 설경구 "추상적인 캐릭터 난감... 변성현 감독 믿었죠"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렇게 추상적인 캐릭터는 처음 받아봐서, 기밀 데도 없고 난감했어요. 겉으로 내색은 못 하고, '이게 맞아?' 의심하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에서 배우 설경구는 낯선 캐릭터에 촬영 초반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가 맡은 '아무개' 역할은 이름도 출신도 알려지지 않은 채 국가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정체불명의 해결사였다.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설경구는 "그래도 변성현 감독의 머리에 영화의 전체 그림에 대한 설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믿고 간 것 같다"고 떠올렸다.

'굿뉴스'는 비행기 납치범들을 회유해 작

록을 유도하고,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그린 블랙 코미디다. 1970년 일본 적군과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요도호 사건을 소재로 했다.

설경구가 연기한 아무개는 공식 직함 없이 국가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밑 공작으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춘다.

엄중한 회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궁색한 옷차림과 가벼운 말투로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만, 설경구의 연기는 '웬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는 현실감을 더한다.

설경구가 변성현 감독과 작품을 함께한 것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7), '킹메이커'(2022), '길복순'(2023)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설경구는 변 감독에 대해 "제가 확실히 믿는 감독"이라며 "말도 안 되는 걸 실제처럼 보여주는 게 영화라는 걸 알려줬고, 저의 좁고 고지식했던 시야를 확 넓혀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정보부장 박상현 역을 맡은 배우 류승범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고 한 마디로 평했다.

설경구는 "류승범은 옛날과 행동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웬지 품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이 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칭찬했다.

이어 "항상 웃고, 전과 다른 류승범을 보는 게 놀라운 경험이었다"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자유로움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굿뉴스'는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돼 한 차례

관객들을 만났고, 국내에서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설경구는 "토론토에서 관객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국 반응도 보고 싶었다"며 "부산에서 일반 관객과 함께 객석에서 영화를 관람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 반응이) 초반에는 좀 경직됐다가, 서서히 폴리더라"며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 안심이었다"고 덧붙혔다.

설경구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정보 없이 즐기신 뒤에 실제 사건을 찾아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one@yna.co.kr

## BTS 제이홉, 르세라핌 신보 '스파게티' 피처링... 24일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르세라핌의 신곡을 피처링한다.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제이홉이 오는 24일 오후 1시 발매되는 르세라핌의 싱글 '스파게티'(SPAGHETTI)에 피처링으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이홉이 K팝 걸그룹의 노래를 피처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르세라핌이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제이홉은 빠른 박자의 비트와 현란한 조명에 맞춰 자세를 잡

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르세라핌과 제이홉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르세라핌 멤버 허윤진은 제이홉의 솔로 앨범 '호프 온 더 스트리트 볼륨.1'(HOPE ON THE STREET VOL.1) 수록곡 '아이 돈트 노'(i don't know) 가창에 참여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이번에는 제이홉이 르세라핌의 컴백에 힘을 보태며 선후배 간의 의리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cjs@yna.co.kr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0월 19일(주일) 목사 임직식이 있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수요일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예배 설교를 했었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이렇듯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 이 자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있을 수 있는 자리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며, 모든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다.

우리는 능력으로 세움받지 않았다. 은혜로 부름 받았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 시작된 목회, 선교, 전도, 은혜로

이어질 사역” 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은혜는 나의 존재의 근거이다. 바울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 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절망 대신 은혜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다.

둘째 은혜는 나의 사역의 동력이다. 바울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고 했다. 은혜는 게으름의 이유가 아니라 헌신의 동기이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로 일한다. 은혜를 아는 목회자는 불평 대신 찬송으로 사역한다. 목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며,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

를 나누며 사역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동역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은혜는 나의 미래의 소망이다. 바울은 현재의 사역뿐 아니라 미래를 은혜에 맡겼다. 그는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골 4:13)” 고 고백했다. 목회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한 목회는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 목사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말한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 나의 선교와 전도 사역 그리고 나의 인생 모두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 임을 고백한다. 이제부터의 모든 걸음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나기를 기도한다. 수요일예배 시간

에 처음 축도를 해보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목사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니 감사하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한다. 앞으로의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한다. 섬김의 자리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마다 은혜로 세워지게 해달라 기도한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힘을 얻는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린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쓰는 인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느 책 서두에 쓰인 문구이다. 노트란 가장 인간다운 생각의 출발선. 또한 인간의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창의적 공간이자 사유의 동반자.

노트note의 어원이 재미있다.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기호나 표시를 의미했다. 이제는 메모나 기록이나 주석註釋 따위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쓰고 그리는 것을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행위로 여겼을까 말이다. 뭔가를 쓰고 그리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해소했을까. 도대

체 조상들은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남기고 전달하고자 했을까. 땅바닥이나 바윗돌 표면이 종이여겼고 막대기나 숯덩이가 필기구였을 테니 종이의 연필의 발명은 대단한 인류의 업적인 바.

요즈음은 컴퓨터노트북이 대세다. 종이책과 종이공책이 한참 밀리고 있는 거다. 종이공책인 노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책空冊인데, 이제는 컴퓨터노트북이 일반화 되었다. 공책空冊 컴퓨터라 한다면 어색하다.

공책은 비어있는 책이라는 뜻이다. 비어

있다면 채워야 하는 법. 인간의 욕망은 비어있는 꼴을 볼 수 없는 바. 책의 공간을 글로 채우든지, 낙서로 갈겨 대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모두 공책인 노트북 주인의 마음인 게다. 빈 종이를 채우는 건 인간일 테니 ‘쓰는 인간’ 되는 거다. 라틴어로는 호모 스크리벤스(Homo Scribens) 라 하던가. (알지도 못하면서 라틴어를 들먹인다. 그러나 호모 스크리벤스라 말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

인간에게 어디 쓰기와 그리기 뿐이라. 듣기도 하고, 읽고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단서가 붙는데, 쓰거나 듣거나 읽거나 볼 적에도 좋은 것만 골라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이다.

허잘 것 없는 일로 지난 날/언어들을 고되게/부러만 먹었군요. 때는 와요./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이야기할 때이지만/그때까진/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채워야 해요.

(신동엽, 좋은 언어중에서)

내게 듣고 보는 건 유튜브다. 읽은 건 소설이나 신문칼럼 두어편이다. 이런 글들과 때론 허접한 영상들이 몸과 정신건강에 유익한지 그건 구별할 수는 없다.

쓰는 일이 행운이었다면, 앞으로 써야 하는 일이 기적일 수도 있겠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 8: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크서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잘 쉬어도 판다처럼 짙어지는 다크서클, 원인에 따른 개선 치료법에 대하여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성형외과 고효선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유발하는 '다크서클'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고민거리다. 다크서클은 눈밑의 색조 변화와 음영으로 눈가가 어둡게 보이는 현상으로 특정 질환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폭 자고 일어났는데도 다크서클이 사라지지 않고 나이 들어 보이는 미용적 고민이 계속된다면 성형외과에서 적절한 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

다크서클은 눈밑(하안검)이 검거나 그늘져 보이는 상태다. 의외로 다크서클에는 종류가 많다. 피부가 얇아 혈관이 투영돼 푸르스름하거나 보랏빛으로 보이는 혈관성 다크서클, 눈 밑 지방 돌출과 골격 구조 차이로 그림자가

는 구조성(음영형) 다크서클,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인한 색소성 다크서클,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발생하는 혼합형 다크서클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과 다크서클도 관련이 깊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으면 코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코 주변과 눈 밑의 정맥 혈류가 정체된다. 이로 인해 혈관성 다크서클이 푸르스름하거나 보랏빛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염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눈 주위를 비비게 되면 색소침착으로 인한 갈색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

눈 밑 지방 돌출로 인해 꺼진 부위와 돌출 부위 사이에 그림자가 지는 구조적 음영도 많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와격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앞으로 나오기 쉽다. 이럴 경우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데, 수술은 단순히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돌출된 지방을 아래로 이동 및 재배치해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성형외과 고효선 과장은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로 눈 밑의 볼록함이 완화되면서 그림자가 줄어들고 구조적

다크서클이 개선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상이 덜 피곤해 보이고, 눈 밑 피부가 매끈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혈관성이나 색소성 원인으로 인한 다크서클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에서는 다크서클 원인에 따라 눈 밑 지방재배치 이외에도 필러와 혈관색소레이저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혈관성 다크서클은 혈관 레이저 등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얇은 피부를 보강하기 위해 스킨 부스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색소성 다크서클에는 생활 습관 개선 및 레이저토닝(피코레이저 등)과 자외선 차단 등을 이용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성형외과 고효선 과장은 "다크서클은 두 가지 이상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잘 알려진 해결 방법은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이며,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아토피피부염이 오래 지속되면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본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효선 과장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응시하면 눈과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이

쌓여 혈관성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안구건조증으로 눈을 자주 비비면 색소침착형 다크서클을 유발한다"며 "의학적 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다크서클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및 피로 해소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 쉬어도 판다처럼 짙어지는 다크서클, 원인에 따른 개선 치료법"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health.us

**Hmart**  
hmart.co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